

피크닉·쇼핑 동시에... 245개 브랜드 어우러진 자연 속 별장

롯데 '타임빌라스' 10일 그랜드 오픈

연면적 17만5200㎡ 4개층 구성 자연 친화설계, 체험 콘텐츠 마련 "경기남부 대표 복합문화공간 도약"

경기도 의왕시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가 오는 10일(8일 프리 오픈) 그랜드 오픈하며 변화와 혁신에 나선다. 자연과 어우러진 공간에서 오프라인에서만 누릴 수 있는 쇼핑의 경험과 가치에 집중한다.

'타임빌라스(Time Villas)'는 '시간(Time)'과 '별장(Villas)'의 합성어로 '시간도 머물고 싶은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자연 친화적인 설계와 다양한 체험 콘텐츠로 기존에 없던 아울렛의 혁신을 보여준다.

단순 '쇼핑' 공간을 넘어 남녀노소 온 가족이 함께 '소풍'을 즐길 수 있는 '자연 속 휴식'이란 콘셉트의 복합문화공간을 제안한다. 연면적 약 17만5200㎡ 규모에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4개층에서 245개의 다양한 브랜드를 만날 수 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자연 속 아울렛

타임빌라스가 위치한 의왕시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생태 휴양도시로 전체 면적의 85%가 녹지공간이다. 실제로 서울의 강남과 잠실에서는 30분, 서울 사당과 경기도의 분당, 수원, 안양 등에서는 20분이면 도착하는 최적의 접근성으로 백운호수와 바라산 등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즐기기 위해 주말과 평일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 외부 조감도



타임빌라스 글라스빌 전경

/롯데쇼핑

있다.

타임빌라스는 백운호수, 바라산과 함께 경기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힐링 명소'에 도전한다.

타임빌라스의 시그니처 공간은 투명한 유리 온실을 연상시키는 '글라스빌(GLASS VILLE)'이다. 최근 서울의 '익선동'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글로벌서울'과 협업해 약 9300㎡ 규모의 야외 녹지 공간에 세워진 총 10개의 '글라스 하우스'는 바라산을 배경으로 독특한 풍경을 선보인다.

'글라스빌' 앞으로 넓게 펼쳐진 '플레이빌(PLAY VILLE)'에서는 자유롭게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자연을 느끼며 쉴 수 있다.

◆차별화된 하드웨어

'타임빌라스'는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교외형 아울렛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폐형

천장'과 '폴딩 도어'를 구축하여 모든 매장을 100% 인도어화했다. 그리고 야외의 '글라스빌'도 지하의 매장들과 연결되어, 날씨 등에 구애 받지 않고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실내 곳곳에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공간들을 조성했다. 웰컴 광장인 '더스테이션(THE STATION)'에서는 30m 높이의 유리돔 천장을 통해 아늑한 자연 채광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2층에는 백운호수의 석양을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다이닝 존'을, 옥상에는 잔디밭에서 백운호수와 바라산을 감상하며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루프탑 피크닉 광장'을 조성했다.

◆오프라인의 강점 '체험형 아울렛'

자녀 동반 고객이 많은 교외형 아울렛의 특성을 반영해 아동·유아 콘텐츠에 심혈을 기울였다. '글라스빌'의 '디트로네 라운지'는 프리미엄 전동카쇼룸과 레스토랑이 복합된 국내 유일의

플래그십 매장으로 야외 산책로에서 전동카 투어를 즐길 수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3040영골퍼들을 위해 '골프' 매장에도 체험 요소를 강화했다.

국내 유통사 최초 시타 퍼팅베이를 도입한 'PXG' 매장에서는 직접 클럽을 사용해본 후 구매할 수 있으며, '타이틀리스트'도 클럽 팩토리 매장과 피팅 전문 매장이 결합된 'TFC(타이틀리스트 피팅 센터)' 형태로 입점한다. 그 외에도 퍼팅과 스윙 연습이 가능한 특수 모래가 설치된 '벙커 연습장'을 갖추고 있으며, '세인트앤드류스'와 'AK골프'를 포함한 총 17개의 유명 골프 브랜드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기존 교외형 아울렛보다 식품매장의 구성비도 약 10% 늘려, 총 47개의 다양한 F&B를 즐길 수 있다. 대표 브랜드로는 친환경 체험형 농장 카페인 'THE BATT(터밭)'과 의왕 지역 맛집으로 유

명한 '올가', '백운동', '정원칼국수' 등이 있다.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황범석 대표는 "타임빌라스'는 네이밍부터 설계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 기존의 아울렛과는 차별화했다"며 "단순 쇼핑을 넘어 고객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하며 즐길 수 있는 경기 남부 지역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주식형 ETF 시장규모 50兆 돌파 자금유입 상위종목 60% '해외주'

지난해 말 대비 순자산 9조 ↑ 일평균 거래대금 美·中 이어 3위 "친환경·신기술 투자 가능해져"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자금 유입 상위 10종목 중 6종목이 '해외주식 ETF'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에프앤가이드와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주식형 ETF의 순자산 총액(AUM)은 51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대비 9조원 가량 규모가 커졌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올 들어 3조174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괄목할 만하다. 한국 ETF 시장은 순자산 총액으로는 세계 11위, 일평균 거래대금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해외주식 ETF로의 자금 유입이 두드러졌다.

이정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해외주식 ETF 시장규모는 4조5000억원으로 전체 주식형 ETF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8%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올해 해외주식 ETF 시장규모는 1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자산 규모가 6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주식 ETF 시장에서 해외주식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자금 유입 상위 ETF 10종목 중 6종목이 해외주식 ETF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유입 1위 종목은 해외 테마형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 전기차 SOLACTIVE'로 1조4590억원의 자금순유입이 이뤄졌다. 이 상품은 중국 클린 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국이나 홍콩 소재의 기업 중 시가 총액이 높은 상위 종목들로 구성돼 있다.

이어 ▲TIGER 미국테크TOP10 IN DXX(5020억원) ▲TIGER 글로벌리튬&2차전지(4950억원) ▲TIGER 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4540억원) ▲TIGER 미국S&P500(3800억원) ▲TIGER 차이나항생제(3570억원) 등 해외 테마·업종형 주식 ETF에 자금이 몰렸다.

미국 주요 증시가 7개월 연속 상승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이에 발맞춰 다양한 해외주식 ETF를 선보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들도 해외 경제나 이슈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중국 전기차, 바이오 테크 등을 시작으로 최근 3개월 사이 해외 테마형 ETF는 8개나 출시됐다. 이들 상품은 주로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트렌드에 맞춰 친환경, 신기술 관련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연구원은 "과거 개인투자자의 ETF 참여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인버스와 레버리지 투자 중심이었다"며 "반면, 올해에는 중국 전기차, 글로벌 리튬 & 2차 전지와 같이 해외 테마형 ETF에 투자하는 상품에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국내 상장 ETF를 통해서도 친환경과 신기술과 관련된 투자가 가능하며 향후에도 더 많은 라인업들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물가상승률 5개월 연속 2%대 '고공행진'

▶▶ 1년 '서민은 물가걱정...'서 계속

특히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으로 2%대를 기록한 것은 2017년 1~5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가 상반기 1.8%, 하반기 2.4%로 연간 기준으론 2.1%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망대로라면 올해는 2012년 3월(2.7%) 이후 9년 만에 최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해가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산업동향 & 이슈' 7월호에서 "상반기 물가상승은 기상악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축산물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공급 측면 요인이 컸고 하반기부터는 공급 측면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반면,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은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경기회복세가 강화돼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근원물가 상승세까지 지속적으 이어진다면 기초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물가 상승 뿐만 아니라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도 걱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9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자금 수요 조사'를 실시해 이날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절

반이 넘는 55.8%의 기업이 추석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원활하다'는 15.3%에 그쳤고, '보통'은 28.9%였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이유(복수응답)로는 판매·매출부진이 78.5%로 가장 많았다. 원부자재 가격상승(53%)도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부족한 돈 마련은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36.9%로 '원활하다'는 답변(1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중소기업들이 올 추석에 필요한 금액은 1곳당 평균 3억78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확보하지 못한 금액은 4760만원으로 필요한 돈의 12.6%가 모자랐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조치로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금지원 원활화를 위한 정책기관 및 금융권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